

소비자의 '탁월한 선택'

예담채, 4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 '광역공동' 부문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은 원예농산물 광역브랜드 예담채가 16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0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4년 연속 수상했다.

전북도와 전북농협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발한 전북도 원예농산물 광역브랜드 예담채는 전북 도내 13개 시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지역농협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라북도 대표 브랜드로서 전북농협의 지속적인 브랜드 홍보·관리 및 품질 관리를 통해 고품질 안전 전라북도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예담채는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 장관상을 3년 연속(2014년~2016년),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을 3년 연속(2015년~2017년) 수상한 것과 더불어 금차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대상도 4년 연속 수상함으로써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농산물 광역브랜드로 그 위상을 공고히 했다.

광역공동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한 예담채는 2008년 원예농산물 브랜드 출시 이후 3년간 농기맞춤형으로 조직화 교육 및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부터는 전라북도에서 10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전라북도 최고급 쌀 십리향(미(향미))까지 품목을 확대 출하하



고 있다. 양 기관은 예담채 브랜드로 전북 쌀의 경쟁력을 키워 전북을 대표하는 최고급 쌀로 육성할 계획이다. 예담채는 전북 농산물의 판매확대를 위해서 매월 수도권 및 영·호남 하나마트 및 대형유통업체(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중·소형 마트(빅마켓, 메가마트, 서원유통 등)에서 전북농산물 통합판매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유명 박람회 등 참가하여 소비자는 물론 유통 바이어들에게 까지 전북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예담채 브랜드가 전국 대표 광역 브랜드로 발돋움함에 따라 농협인들이 전북을 대표한다는 큰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예담채 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제고로 농가 수취가 향상에도 기여하여 전북 농업인의 농가소득 상승에도 일조한 것이 예담채가 짧은 기

간에 전국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원동력이다.

전북 농산물 광역브랜드인 예담채는 산지 생산 농가의 조직화 및 물량의 규모화를 기반으로 지역 및 품목 단위 통합마케팅으로 시장교섭력을 제고하여 산지 및 소비지시장의 수급 및 가격 조절 기능으로 전라북도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전북농협 박성일 본부장은 "전북 우수농산물을 도 단위 광역브랜드 예담채를 통해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전북 우수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성을 담보해 전북농산물의 우수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선택 받는 브랜드로 정착시킴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협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올해도 대형 유통업체 대상으로 홍보, 사과, 껌벨포도, 신고 배, 등 과일과 고구마, 양파 등의 과채류 품목에 대하여 전라북도 농산물 특별판매전을 개최하고, 추석 명절을 대비해 제주 품목인 과일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예담채 사과·배 혼합 선물세트를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에게는 희망을 소비자들에게는 가치를 제공하여 맛과 멋의 예담채 전복을 느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16일 충북 음성 인삼특작부에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국내산 원료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산업 이용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국산 약초로 건강기능식품 만든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건강기능식품협회 협약 체결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 국산 약초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적극 나선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16일 인삼특작부(충북 음성군)에서 '국내산 원료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산업 이용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산업 규모는 4조 6천억 원으로 이 중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비율은 33.1%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생물의약품의 이익공유와 관련된 나고이더의 정세가 시행되고 원료 수입이 불안정해지며 국내

산 원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산업체에서 국내 약용식물자원을 활용해 원료 국산화와 소재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체별 약용작물 수요와 수출물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약용작물 생산 기술과 가공기술 분야에서 힘을 합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약용작물 육성 품종과 함께 재현성·균일성이 보충된 자원을 활용, 산업체 맞춤형 추출물을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미

정부혁신에 따라 지난 3월 업계에서 조사된 추출물 수요를 바탕으로 감초 육성 품종과 새싹물류, 황기 등 24개 작목을 재배하고 있으며, 올해 11월까지 분양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국내산 약용작물 추출물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과 가공기술을 개발하는 등 산업화에 나선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인삼특작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산 약용작물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연구와 실용화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라며 "약용작물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입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증 수여

전북중기청, 자동차 부품기업 대림씨앤씨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16일 '20년도 글로벌강소기업에 선정된 대림씨앤씨(주) 현장을 방문해 지정증 수여 및 현판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림씨앤씨(주)는 2009년 설립 이후 자동차용 커넥팅로드, 캠샤프트 등 엔진부품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 382억원 그리고 북미 등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자동차부품기업이다.

2020년 글로벌강소기업에 대림씨앤씨(주)를 포함해 전북에서는 세계시장에 도전할 수출중소기업 (주)벨로시스, (주)알투스, (주)대두식품, 삼일산업, (주)범농, (주)고고신 7개사를 선정할 바 있다.

전북중기청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을 선도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의 자금심 고취와 현장으로 청취를 위해 대림씨앤씨(주)를 포함 전북지역 글로벌강소기업 7개사를 모두 방문해 지정서 및 현판을 직접 전달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글로벌강소기업은 중앙-지방-민간 상호 협력모델을 통해 향후 4년간 중기부, 전북도,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마케팅, 기술개발, 금융지원 등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남우 청장은 "글로벌강소기업은 전북을 대표하는 수출중소기업들로 특히 대림씨앤씨(주)는 자동차용 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며 "전북중기청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남원 지역아동센터서 '희망의 공부방' 오픈

남원시와 전북은행은 16일 예던지역 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105호 오픈식을 가졌으며, 우리지역 아동센터에서는 제106호 오픈식을 가졌다.

전북은행에서는 매월 1회 'JB희망의 공부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아동들이 미래의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은행은 매년 1곳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올해에는 인원이 가장 많은 시설과 환경이 열악한 시설 두 곳을 선정했다.



이 날 오픈식에는 이환주 시장과 전북은행 부행장, 남원지점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예던·우리지역아동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치과병원 윤정호 교수 우수논문상 수상

전북대학교병원 (병원장 조남전) 치과병원 치주과 윤정호 교수가 대한치주과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이 제30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16일 전북대병원에서 따르면 대한치주



과학회 발행 학회지인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 (JPIS)에 발표된 윤정호 교수의 'Comparative preclinical assessment of the use of dehydrated human amnion/chorion membrane to repair perforated sinus membranes'이라는 논문이 2020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수여하는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윤상 기자

김영범 의심되면 '1339'로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